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4. 4(목) / 총1매(본문1)
담당 부서	대광위 광역버스과	담당자	·과장 손덕환, 사무관 김종복, 주무관 박미희 ·☎ (044) 201-5045, 5067, 5066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- 현재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·잠실을 오가는 2개의 노선 폐지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대체 사업자 선정 및 운송수단 마련 등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.
-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(M버스)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일보, 4.4) >

○ 주 52시간 부담에... '출근길 만석' M버스 2개 노선 사라짐

- 인천시가 시민들을 위해 특별 지원을 해서라도 노선을 살렸으면 좋겠음
-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 경영 여건이 더 어려워져 폐선 노선 증가 우려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 김종복 사무관 (☎ 044-201-5067),
 박미희 주무관(☎ 044-201-506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